

보도일시	2022. 12. 27(화) 10:00	배포일시	2022. 12. 27(화) 10:00
담당부서	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	책임자	부장 박하규(061-338-5861)
		담당자	대리 손솔아(061-338-5863)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조 4,027억원 역대 최대 지원

- 청년농, 위기농, 은퇴농 등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사업추진력 높여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역대 최대지원액인 1조 4,027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73억 증가한 수준으로, 사업별로는 △맞춤형 농지지원 7,821억 원 △경영회생지원사업 3,232억 원 △농지연금 2,408억 원 △과원규모화사업 331억 원 △경영이양직불 235억 원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수요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 강화,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4분기에 사업비 155억 원을 증액하여 부채 농가 지원을 확대했다.

이병호 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강화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돕고, 고령 은퇴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